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2월 20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마태복음 5장 21-22절

설교제목 :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6계명만큼은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21은 예수님의 6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20:13에서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차흐’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대체로 ‘불법적인 살인’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즉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입니다. 따라서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며, 계획적이고 의도된 살인을 말합니다. 사실, 6계명은 모든 종류의 살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모든 종류의 살인을 금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엄연히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출22:2) 하나님께서는 밤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을 죽였다면 정당방위로 허용하십니다. 여기서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살인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라그’입니다. 즉 ‘하라그’는 정당방위의 살인,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이는 살인, 업무상의 과실치사로 인한 살인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창9:6) 살인은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인간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짓밟고 압제하고 죽이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6계명의 핵심은 변함없이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도피성은 무고한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또한 성경은 6계명의 영역을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계의 대한 영역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을 다루면서, 코로나 19가 결국은 생태계를 교란시킨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기원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6계명은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생태의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개인부터 시작해서, 교통수단, 건물, 도시를 녹색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통수단과 건축을 선택함에 있어 친환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노하는 자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르기조메노스’는 일시적인 흥분을 나타내는 ‘뒤모스’와 달리 주로 악의적 감정을 품은 지속적인 분노를 가리킵니다. 이 분노는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좋지 않은 악감정에서 만들어진 분노입니다. 쌓여진 분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쌓여진 분노는 표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선과 표정과 행동과 언어로 표출되어집니다. 표출되어지면 마치 용암이 터지듯 터집니다. 따라서,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표현합니다. ‘라가’는 히브리 욕입니다. 그 뜻은 ‘머리가 텅빈’, ‘멍청이’, ‘바보천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보면, 돌대가리 정도가 됩니다. 쌓여진 분노가 터지면 상대방에게 거침없는 행동과 말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표출은 결국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모욕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미련한 놈’이란 문자적으로 ‘우매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매한 놈이란 의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놈이란 뜻이 강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매우 심한 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쌓여진 분노는 언젠가는 상대방을 표출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모욕적인 행동과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상대방

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격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본 제 6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의 존재를 미워하고, 상처주는 언어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6계명의 핵심은 인간의 생명 즉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만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했다면, 오히려 연자뱃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하셨습니다.(막9:42) 한마디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인격모독을 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본 6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의 강도가 점점 더해집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습니다.(마5:22) 여기서 ‘심판’ 즉 ‘크리시스’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심리하는 지방법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회’ 즉 ‘쉬네드리온’은 중요한 사건만을 심리하는 ‘중앙최고법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옥이라 함은 종말의 지옥 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련한 놈이란 인격모독의 행위를 하면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행위는 자신이 불신 영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의미입니다.(참고 요일3:15) 따라서,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약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마5:23-24)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의적인 회개보다 실제적인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회개는 잘못된 상대방에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실제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가 실제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먼저 양보와 배려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6계명의 실천은 매우 작은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6계명은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닙니다. 6계명은 매우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것입니다. 바라는 새언약의 백성으로 6계명의 실천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살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차흐’와 ‘하라그’의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살인하지 말아야 할 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예수님께서 6계명을 새언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6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6계명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보존, 사회적 구조, 더불어 예수님의 새언약의 관점에서 한 인간의 존중에 관한 영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새언약의 백성으로 6계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